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음력 1월1일을 신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매년 1월1일이 신년이지만 여러가지 민속적인 행사는 음력1월1일에 행하여집니다.

이날의 행사는 전통적인 성격의 것으로, 주로, 신년이 되어서 조상에게 감사와 새로운 1년에 대해서 복을 비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신년인사를 하며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서로 올해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신년의 특별한 음식은 “떡국”입니다. 그것을 먹으며 나이를 먹은 것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은 이 날에 “연날리기”를 하거나, “팽이치기”를 하거나 “널뛰기”를 하거나(이것은 주로 여자아이들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놀이를 하거나 하는 아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새로운 놀이가 생겨서, 이런 민속적인 놀이에 흥미를 갖지 않아서 일것입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서 “웃놀이”를 하거나 합니다. 평소 만나는 일이 별로 없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웃놀이를 하는 것은 친교를 돈독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신년을 기념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신년을 맞이하는 것이 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